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회개하며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6-7)

또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준비하시며,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맨발로 뛰쳐나와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과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며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방황하며 고집피우며 살아야 되겠는가?

아울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상처받은 자, 실족한 자들을 참된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겠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이미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어 정결케 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흰옷을 입은 자이고(계 7:9), 큰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고(계 7:14),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다(계 3:4-5).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우리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끝으로, 믿음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히 11:6),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롬 14:2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또한 그분이 나의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빌립보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 4:18)고

하였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살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예배, 그리고 회개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며, 믿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자!